

‘전라도 1000년’ 삶의 터전을 돌아보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18일~내년 11월 전시
주거생활·농업기술·공예 등 500여점 소개

올해는 전라도 정명 100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1018년 전국 팔도 가운데 가장 먼저 ‘전라도’로 정명될 만큼 정치적, 문화적으로 유서 깊은 땅이다.

정도 1000년을 맞아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립민속박물관(관장 조만호)은 터전으로서의 전라도를 조명하는 전시를 18일부터 내년 11월(예정)까지 개최한다.

‘삶의 터전, 전라도를 돌아보다’를 주제로 여는 이번 전시는 정도 천년을 기념해 지역민들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데 초점을 뒀다. 아울러 노후화된 민속박물관 리모델링에 따른 대체 전시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87년 개관한 민속박물관은 30여년 만에 상설전시실의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내년 말까지 진행 중에 있다.

전시회는 총 4부로 구성되었으며 500여점의 자료가 소개된다.

제1부 ‘자연과 조화로운 삶터’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거 생활공간을 재현한다. 전통시대에서 근현대 시대로 이르는 과정에 나타난 유물과 자료를 통해 민속의 의미를 재해석한다. 사랑방과 안방, 대청, 부엌 등을 실물에 가깝게 재현한 생활공간은 지난 삶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한다.

제2부 ‘삶의 터전’에서는 전라도 대표 생업인 농업을 중심으로 농업 기술과 이에 따른 다양한 변화상을 조망한다. 농업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농가집성’ 등 농서(農書)를 시작으로 쟁기와 씨레 등 각



채상(위)과 ‘삼의당유고’.

종 농기구와 이양법(모내기) 등 농업기술의 발전사를 되돌아본다.

남도공예의 특징을 조명하는 자리도 마련돼 있다. 제3부 ‘손끝의 예술, 민속공예’에서는 죽세공예, 목공예, 분청사기와 청자 등의 도자공예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대나무로 만든 채상, 피죽상자, 합죽선과 대나무의 표면을 인두로 지져 서화를 그린 낙죽 등에서는 조형미를 엿볼 수 있다. 나무만 작품들도 선보여 자연미와 예술성이 가미된 남도공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경주 이씨 분묘 출토 장옷.

마지막으로 제4부 ‘전라도 사람들’은 일생의례가 주제다. 지역민의 인생관에 관한 의식 구조와 무형유산으로서의 일생의례의 의미를 조명한다. 출생-성장-혼례-죽음 등의 중요한 삶의 단계인 일생의례는 당대 사회의 제도와 법률, 정신문화 등 공동체를 상징하는 다양한 문화가 융합돼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시대 유교적 의례를 수록한 ‘예기(禮記)’와 1935년 전남도에서 발행한 ‘의례준칙해설’ 등을 토대로 전통 의례문화의 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강진의 전석꾼으로 알려진 김방식이 부친상 때에 제작한 화려한 외관의 2층 상여를 전시해 1920년대 장례문화의 일단을 보여준다.

조만호 광주시립민속박물관장은 “2018년은 전라도라는 이름을 사용한지 꼭 1천년이 되는 해로 그 역사적·문화적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전라도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되짚어 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의 062-613-536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섬유예술로 살아난 광주 음성

조선섬유조형회전 29일까지 ‘예술 공간 집’

고려 말엽 축조된 이후 1900년대 철거된 광주음성은 길이 2.5km, 높이 3m 규모의 성벽으로 에워싸인 공간이었다. 광주음성의 4대문 중 동문은 전남여고 후문 근처, 서문은 황금동 콜박스 사거리, 남문은 아시아문 전당 부지 안, 북문은 충장로 파출소 앞에 있었다.

광주의 옛 모습을 섬유예술로 재조명한 전시가 열린다. ‘광주 음성을 돌아보다’라는 주제로 29일까지 광주 ‘예술 공간 집’에서 열리는 ‘조선섬유조형회(회장 류옥희)전이다.

1986년 창립된 조선섬유조형회는 조선대 미술대학 섬유공예 전공자들의 모임으로 노은희 전 조선대 미대 교수와 한선주 교수, 정예금 작가 등 3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은 1986년 첫 회원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광주, 서울, 나주 등에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전시회를 열어왔다. 이번 전시에서 19명의 회원들은 섬유가 갖고 있는 친숙함과 포근함, 섬세함을 담아 각자의 시각으로 해석한 광주음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광주음성의 옛 지도



노은희 작 ‘광주를 위해 둘러싸인 나무들’

는 업사이클링 기법을 활용한 나무를 이용해 표현하고, 광주음성을 돌며 만나게 되는 꽃의 이미지는 펠트와 털실 등으로 작업했다. 또 광주 도심의 푸른길, 성곽에 쌓인 돌의 형상, 서석국민학교의 모습 등 다양한 광주음성의 모습을 담았다. 문의 062-233-334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화폭 가득 동구 옛 풍경

광주미술작가회 회원전 20일~10월 1일 무등갤러리

‘작가들이 담은 광주 동구의 옛 풍경.’

광주미술작가회(회장 정미희) 회원전이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무등갤러리가 기획한 작가지원 프로젝트에 선정돼 열린다.

광주미술작가회는 지역에서 활발히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견작가 20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평면과 조형, 전통과 현대, 구상과 추상을 아우르는 다양한 작가들이 모였다.

이번 전시회에서 회원들은 ‘그 리움으로 화폭에 담다-동구의 옛곳을 찾아’를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오랫동안 광주에서 터를 잡고 활동해 누구보다 ‘광주’에 대해 잘 알고, 애정을 갖고 있는 회원들은 특히 동구 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가 광주의 풍경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작가들은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사라져 가는 허름한 주택가의 구불구불한 골목길과 슬레이트지붕, 옛 모



정미희 작 ‘passion’

습의 향수, 삶의 흔적들을 화폭에 담아 관객들과 광주의 역사와 옛 정취를 나눈다.

김강수, 김한울, 김선희, 박해경, 박경희, 서강석, 서현호, 유태환, 이경순, 이인호, 임경욱, 임종호, 장복수씨 등이 참여했다. 오프닝은 20일 오후 6시다. 문의 062-236-252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세현 사진작가 작업실서 ‘월레회’

내일 광주비엔날레

(재)광주비엔날레가 진행하는 ‘월레회’ GB작가 스튜디오 탐방 열 네번째로 이세현(사진) 사진작가의 대인동 작업실을 19일 오후 2시 방문한다.

이 작가는 2018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 참여작가로 필리핀 컨템포러리 아트 네트워크가 기획한 ‘Hothouse’ 전에서 사진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는 이강하 미술관과 북구의 신생 미술공간 핫하우스에서 열리고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장소인 구 전남도청, DMZ 등 역사적 현장을 앵글 안에 담아내는 작가는 화면 안에 돌을 던지는 행위를 통해 역사에 대한 물음을 시각화한다.



2018년 대만 Soulangh Artist Village 레지던시 등에 참여했다. 문의 062-608-4233.

/김미은 기자 mekim@

광주시인협회 시화전

30일까지 남광주지하철역

광주시인협회(회장 김석문)가 제10회 시화전 ‘금빛 찬란한 고목’을 개최한다.

이번 시화전은 오는 30일까지 남광주지하철역 만남의 광장에서 15일 동안 열린다. 행사장에는 시인협회 회원 80명의 작품을 시화로 제작한 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전시 기간 중에는 시화전 출품작품을 소시집으로 발간해 전시회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김석문 회장은 “이번 시화전은 회원들의 친목도모와 창작 동기 고취를 위해 마련했다”며 “행사를 계기로 시 창작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도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예술의전당 이사장에 손숙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예술의전당 새 이사장에 손숙(74·사진)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새 이사장 임기는 2021년 9월 16일까지 3년이다. 손이사장은 50여년간 연극무대에 선 연극계 원로다. 예술의전당, 국립극단 등 공공기관 이사장과 마포문화재단 이사장,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집행위원회 위원장과 같은 문화계 직책을 두루 겸임하는 한편 김대중 정부에서는 환경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한정식 A코스 50,000 | B코스 40,000 | C코스 30,000
일품요리 굴비정식 | 삼합정식 | 떡갈비정식 | 황태찜정식 | 새우튀김정식 **22,000**

대를 이은 가족모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족 모임이 시작되는 각별한 인연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기원합니다.
9월 23일~25일은 추석휴무입니다. 26일(수)부터 정상적 모시겠습니다.